

이번엔 '빨간 치마의 마법'이 통했다



김세영이 23일 열린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18번 홀에서 챔피언 퍼트를 성공 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세영,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 제패...2개 대회 연속 우승

시즌 상금·올해의 선수·평균 타수 1위... '트리플 크라운' 도전

영암 출신 김세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엘리 맥도널드(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22만5천달러(약 2억5천만원)를 받은 김세영은 시즌 상금 113만3천219달러를 획득, 상금 1위였던 박인비(32)의 106만6천520달러를 제치고 상금 1위가 됐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포인트 30점을 추가, 106점이 되면서 90점으로 1위를 달리던 박인비를 추월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유지한 김세영은 이번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에서 모두 선두에 나섰다. 10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김세영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을 기록했다. 통산 상금 979만 9천895달러를 획득, 상금 1천만 달러 고지대 눈앞에 두게 된 김세영은 교포 선수인 다니엘 강(미국)과 함께 올해 2승으로 다승 부문에서도 공동 1위가 됐다. 김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계 랭킹 1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위시리스트'(wish list) 중 하나"라며 "올해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세계 랭킹 1위로 목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12승을 달성, 한국 선수 가운데 박세리(은파·43)의 25승, 박인비(32)의 20승에 이어 LPGA 투어 다승 단독 3위가 된 김세영은 "메이저 우승 이후 처음 나온 대회에서 12승째를 따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LPGA 투어 한국(계)선수 우승 일지

※ 2020년 기준, 우승 날짜는 한국 시간

박희영	ISPS 한디빅오픈(2,9)
박인비	ISPS 한디호주여자오픈(2,16)
다니엘 강	드라이브온 챔피언십(8,3) 마리톤 클래식(8,10)
이미림	ANA 인스파이어전(8,14)
김세영	KPMG 여자PGA 챔피언십(10,12) 펠리컨 챔피언십(11월 23일)

김세영
출생 1993년 1월 21일
신체 163cm
최근 LPGA 수상 성적

이번 빨간색 치마를 입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김세영은 관련 질문을 받고 "열네 살 때 한국 아마추어 대회부터 빨간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타이거 우즈를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즈는 마지막 날 빨간색 티셔츠를 입지 않는 바지를 입는 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시즌 LPGA 투어는 12월에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을 포함해 3개 대회가 남았다. /연합뉴스

KIA, '온택트' 호랑이가족 한마당

28일 KIA타이거즈 유튜브 생중계...26-27일 랜선 사인회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2020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0시즌 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현장 초청 없이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KIA타이거즈TV)로 진행된다. 선수단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비대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시즌 영상 상영, 선수단 인사, 선수-팬 토크쇼, 팀 대항 레크리에이션 △선수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열린다. 이에 앞서 '랜선 사인회'도 예정돼 있다. 이창진·최원준·박찬호·김태진(이상 26일)과 김선빈·김규성·고영창·임기영(이상 27일)이 참여해 팬들과 만나고, /박희중 기자



영암 축구 꿈나무 선진축구 클리닉 성료

송중국·이상윤 등 유명 축구선수 직접 훈련 지도

영암군은 23일 "지난 21일부터 22일 까지 영암종합스포츠타운에서 'Stage1 축구클리닉'을 수료한 영암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남·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20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Stage2 축구클리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클리닉은 소속게이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 주관한 이번 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산어촌 유·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축구 꿈나무 선수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9월 영암군 유·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Stage1 축구클리닉을 진행한 이후 2개월여 만에 Stage2 유명선수과 함께하는 축구클리닉으로 진행됐다. Stage2 클리닉에는 송중국·이상윤 등 유명 축구선수가 영암군을 방문해 참가자들과 함께 미니게임, 기본기 훈련 등을 지도했으며 당초 총 3단계로 진행 예정이었던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었던 Stage3 축구클리닉을 취소하고 Stage2에서 마무리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축구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영암 축구 꿈나무들에게 송중국·이상윤 등 유명 축구선수와 함께 한 클리닉이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지난 22일 영암 코리아 인터네셔널 서킷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에서 경기차량들이 출발 대기하고 있다. <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현재복, 벨로스터 마스터즈 시리즈 챔피언

'현대N페스티벌' 8라운드...지영선, 아반떼 시리즈 챔피언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대회이며 ASA가 후원하는 '현대N페스티벌' 8라운드가 지난 22일 영암 코리아 인터네셔널 서킷(KIC)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벨로스터 N컵 마스터즈 8라운드 우승은 17랩을 25분55.478초로 통과한 박준성(팀 MSS)이 차지했다. 이어 25분57.313초를 기록한 현재복(팀 MSS)이 2위를, 25분58.911초의 김재균(팀 위드-비테제)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올해 마지막 경기까지 치른 결과 팀 MSS의 현재복이 '현대N페스티벌' 벨로스터 N컵 마스터즈 시리즈 챔피언 영예를 안았다. 아반떼 시리즈 챔피언은 7라운드에서 이어 이날 8라운드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지영선(개인)이 차지했다. 타이 트라이얼은 전체 참가자가 정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골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시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박차'

내달 개정안 공포 후 준비위원회 구성

광주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광주시체육회는 23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안은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포함 ▲지역체육진흥협회 설치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함 ▲지방체육회를 자금 사용 대상에 포함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체육회와 함께 법정 법인화 등 지방체육회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



지난 6월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중앙),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왼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에서 문제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했고, 지난 6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며 국회와 지방체육회 간 가교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체육회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우려하던 지방체육회는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면 체육인들과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박희중 기자